

#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2 Vol.15

## 중동 인프라 · 원전 시장 현황 및 전망



### I. 서론

### II. 중동 건설시장에 주목하는 요인

### III. 결론

## I. 서론

올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9.5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84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우리 해외건설기업들은 기세를 몰아 3년 연속 해외건설 300억불 달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와 전망을 뒷받침하는 국·내외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오일머니의 유입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의 부활 기대에 대해 분석했다.

## II. 중동 건설시장에 주목하는 요인

### 1.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강 국면 전환에 따른 해외 사업 확대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했던 국내 주택시장이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과거 저금리 정책하에서 호황을 지속했던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데, 주택 시장의 성장지표로 볼 수 있는 분양승인실적 추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분양실적은 '18년 28만호 이후 2년 연속 11%대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1년 이 수치가 꺾이며, -3%대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주택시장 분양실적과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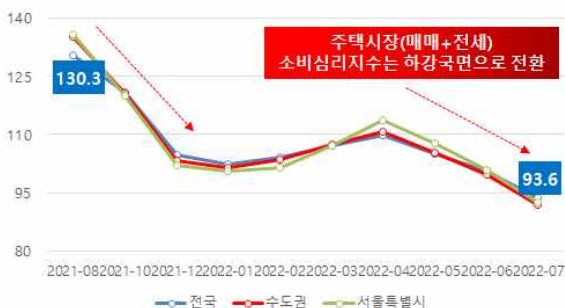


(출처 : 해외건설협회(2022.8), 국토교통부(2022.8))

구분	해외건설 수주액 (억불)	국내 분양 승인실적(천호)
2015	461	525
2016	282	469
2017	290	312
2018	321	283
2019	223	314
2020	351	349
2021	306	337

이러한 분위기는 주택 시장(매매+전세) 소비자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난다. 1년전 130~135 수준으로 상승국면이었던 시장이 올해 7월 전국 평균 93.6, 수도권 92, 서울특별시 92.6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출처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2022.8))

구분	'21.8	'21.12	'22.1	'22.7
전국	130.3	104.7	102.3	93.6
수도권	135.1	103.2	101.4	92.0
서울특별시	135.9	102.1	100.7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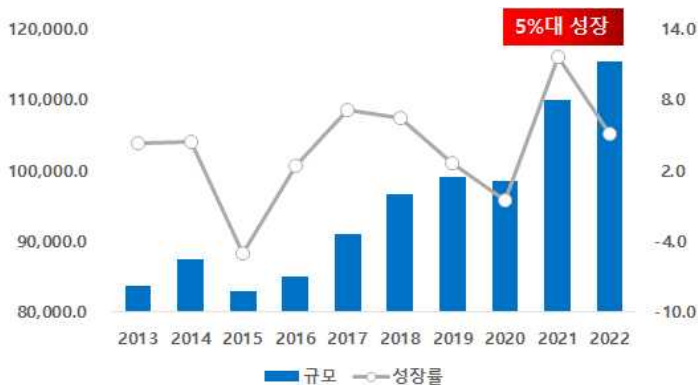
고금리 정책·유동성 감소가 주택 시장 전반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출 비중이 높았던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은 포트폴리오 조정 및 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 2. '25년까지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중동시장 발주 기대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IHS Markit이 최근('22.7)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세계건설시장은 2021년 대비 5.0% 성장한 11조 5,265억불로 전망된다. 지역별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1.5%)이 예상되는 유럽을 제외한 중동(10.2%), 북미·태평양(11.9%), 아프리카(7.6%), 중남미(9.8%)는 평균 성장률(5.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는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출처 : IHS Markit(2022.7),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지역	2021	2022	성장률
중동	4,034	4,446	10.2
아시아	54,645	57,083	4.5
북미·태평양	21,850	24,450	11.9
아프리카	694	747	7.6
유럽	25,115	24,741	-1.5
중남미	3,458	3,798	9.8
전 세계	109,795	115,265	5.0

특히 ‘오일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중동 건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중동 산유국은 최근 80~100불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중동 주요국의 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성장률
UAE	808	896	975	1,005	1,058	7.0
바레인	77	92	97	100	104	7.9
이집트	277	309	339	368	392	9.0
이란	91	134	176	188	210	23.2
이스라엘	535	586	624	652	678	6.1
요르단	47	52	57	60	64	8.2
쿠웨이트	92	110	121	129	137	10.5
모로코	180	184	196	208	219	4.9
오만	87	93	100	107	112	6.5
카타르	400	488	620	614	619	11.6
사우디	861	920	1,016	1,090	1,143	7.4
튀니지	36	39	40	42	44	5.3
튀르키예	542	543	615	624	665	5.2
총합	4,034	4,446	4,975	5,188	5,444	7.8

(출처 : IHS Markit(2022.7),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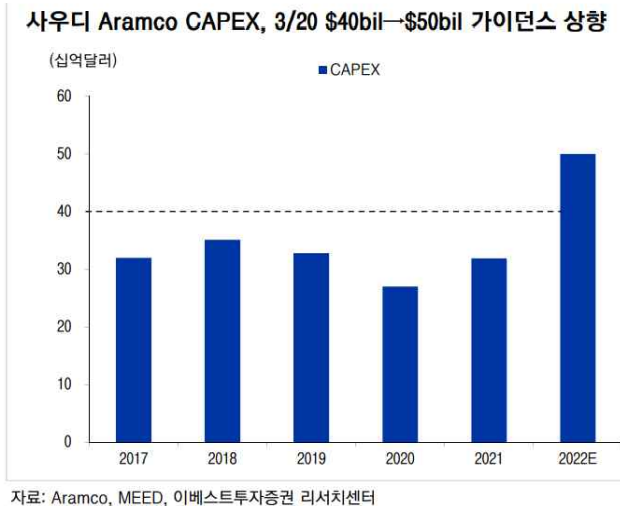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주요 발주처의 수익 구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시기인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높아진 수익은 대규모 시설 투자(Capital Expenditure, CAPEX.)로 이어지며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의 경우, '20년 2분기 이익은 66억불로 대폭 감소했으나, 수익이 확대되며 올해 2분기에는 484억불로 '20년 2분기 대비 7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억불의 CAPEX. 계획을 500억불로 상향 발표했다.

#### [고유가에 따른 Aramco 수익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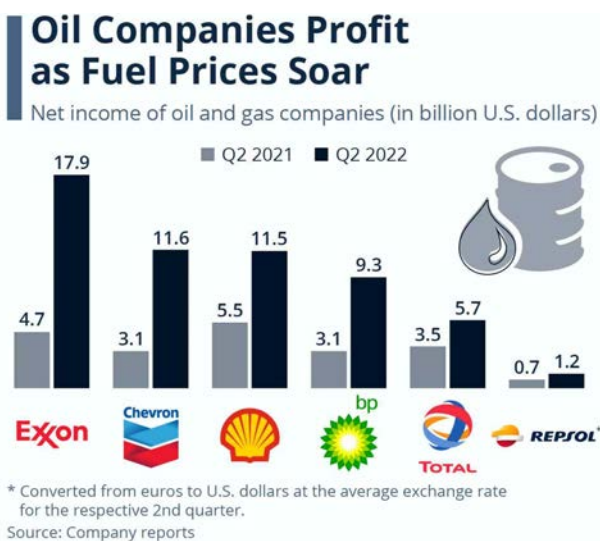
#### [Aramco, CAPEX. 계획 상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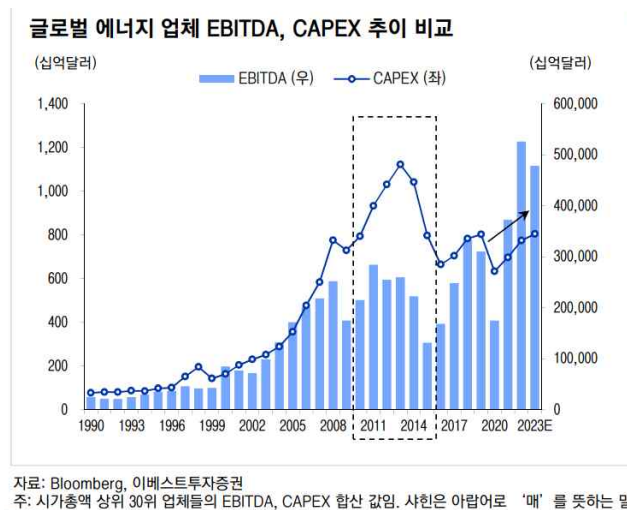
(출처 : Aramco, Statista(2022.8), ME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2.8))

대형 플랜트 시장의 전방 산업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수익 성장세도 눈에 띈다. 특히 Exxon Mobil, Chevron의 올해 2분기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이는 '21년부터 CAPEX. 확대에 이어졌다. 다소 시차가 있겠으나 향후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시장에 발주가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수익 증가 추이]



####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EBITDA, CAPEX. 추이]



(출처 : Company reports, Statista(2022.8),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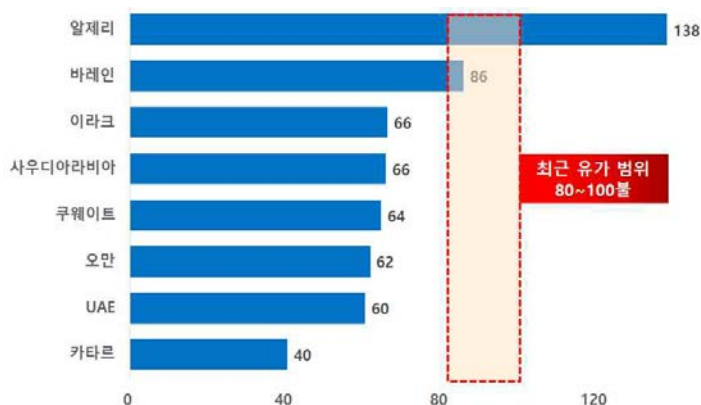
\*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현금흐름의 총합을 의미  
\* CAPEX(Capital Expenditures) : 자본적 지출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비용을 의미



재정 균형 유가가 90불 이하인 카타르, 리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재정 지출 확대 및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기대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기업과의 입찰 경쟁 심화에 대비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기조는 유지하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업 강화 전략은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 및 중국·터키·인도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 기업 및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경쟁력 개선도 필요하다.

[산유국의 재정 균형 유가(Fiscal Breakeven oil price)]

[중동 주요국의 시장 규모·수주 현황]



(출처 : IMF('22.3), IHS Markit('22.3) 해외건설협회(2022.8))

구분	'86~'21 수주액 (억불)	수주 기여도 (%)
카타르	265	3.3
UAE	818	10
오만	112	1.4
쿠웨이트	461	5.7
사우디아라비아	1,057	12.9
이라크	351	4.3
바레인	52	0.7
알제리	179	2.2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Aramco는 '22년에 500억불의 자본 투자를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스트림 석유 부문에 약 30%, 업스트림 가스 부문에 약 27%, 나머지 약 33%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 외 중동 주요국의 국가별 인프라 투자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중동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Aramco는 석유 수출 200만 배럴 증가를 목표로 2022년에 400~500억불의 자본 투자를 계획하면서, 업스트림 석유 부문에 약 30%, 업스트림 가스 부문에 약 27%, 나머지 약 33%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 사용한다고 밝힘. 이는 2021년에 책정된 319억불에 비해 급증한 투자 규모임</li> <li>·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22년 정부 예산 상 교통 인프라에 112억불을 할당하면서 국가의 교통, 운송 및 물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임</li> <li>·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400억불, 그린수소, 태양열, 풍력, 담수화 시설 등 기타 재생 가능한 부문에 320억불을 투자할 계획임</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에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약 207억불의 FDI를 유치했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에너지, 석유 및 천연가스, 부동산, 보건 등에 집중되었음</li> <li>· UAE는 올해 8개 이상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경제 규모를 2021년의 3,810억불에서 향후 7년 동안 8,170억불로 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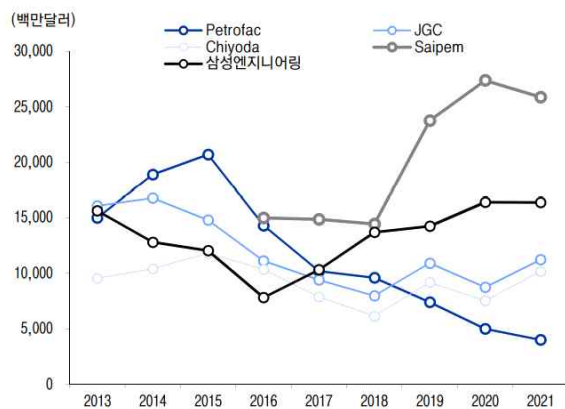
	<p>폭 확장할 계획이며 향후 9년 동안 약 1,500억불의 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례로 지난 5월말, 한국-UAE 기업간 공동투자자로 추진되는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동 개발사업은 UAE의 페트롤링크미와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 및 건설사가 참여하여 아부다비 키자드 산업단지 내에 연간 20만톤의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및 그린수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등을 목표로 함</li> </ul>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만은 2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 6개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21년 11월에 오만 국영 에너지회사와 수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만 OQ社는 Tatweer Petroleum社, 벨기에 Deme Concessions 등과 협력하여 두름 지역에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웨이트석유공사(KOC)는 향후 5년간 석유 탐사에 61억불을 투자하여 매년 700개 유정을 시추할 계획이며, 석유 생산량 증가를 위해 2026년까지 총 28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li> </ul>
카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카타르산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분야에 대대적 투자가 예상</li> <li>•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가스 생산 시설 확장 등을 통해 LNG 생산 능력을 연간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연간 1.3억 톤으로 확장할 계획</li> <li>• 카타르 교통부는 카타르에서 사우디까지 중동주요 지역을 잇는 GCC 철도 연결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GCC 6개국의 운송 및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총 2,500억불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는 GCC 지역을 연결하는 2,177km+ 연장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카타르 담당 구간의 입찰이 2022년 내 발표될 예정</li> </ul>
바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비전 2030’을 통해 교통, 제조, 관광, 통신, 교육 및 의료 등을 포함한 22개 핵심 부문에 300억불을 투자하여 국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li> <li>• Fasht al Jarim시 내 182km<sup>2</sup>의 면적에 신규공항을 포함하여 주거, 물류 및 관광 허브를 건설하고, 간척지 5개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바레인의 지리적 면적을 현재 면적의 3/5까지 늘리고자 함</li> <li>• 109km 연장의 바레인 지하철 시스템을 PPP 모델로 추진하고, 22.5km의 도로 및 사우디로 연결되는 코즈웨이 건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재생 에너지 실행 계획(NREAP)에 따라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5%, 2035년까지 10%로 목표 설정</li> </ul>

(출처 : GlobalData(2022.8))

### 3. 글로벌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주요 경쟁 상대인 Saipem, Petrofac 등 글로벌 EPC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이 악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우리 해외건설기업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했으며,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최근 중동에서 고전을 겪었던 우리 기업이 다시 중동에서 수주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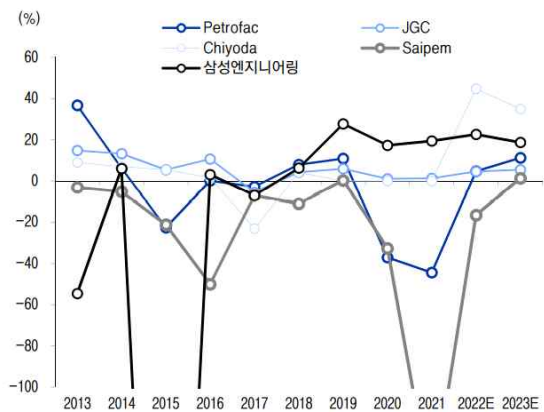
[글로벌 EPC 기업과 삼성ENG.의 수주잔고]



자료: Bloomberg, 각 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출처 :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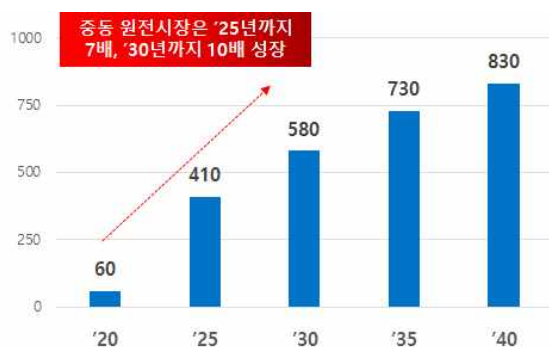
[글로벌 EPC 기업과 삼성ENG.의 ROE]



### 4. '30년까지는 10배 투자가 기대되는 중동 원전 시장

중동 건설시장에서 주목할 분야 중 하나는 원전 시장으로 기대된다. 미국 EIA에 따르면, 중동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은 '25년까지 현재의 6배 규모인 410억 Kwh로 급증할 전망이다. '30년까지는 10배 수준인 580억 K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동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중동 원전 발전용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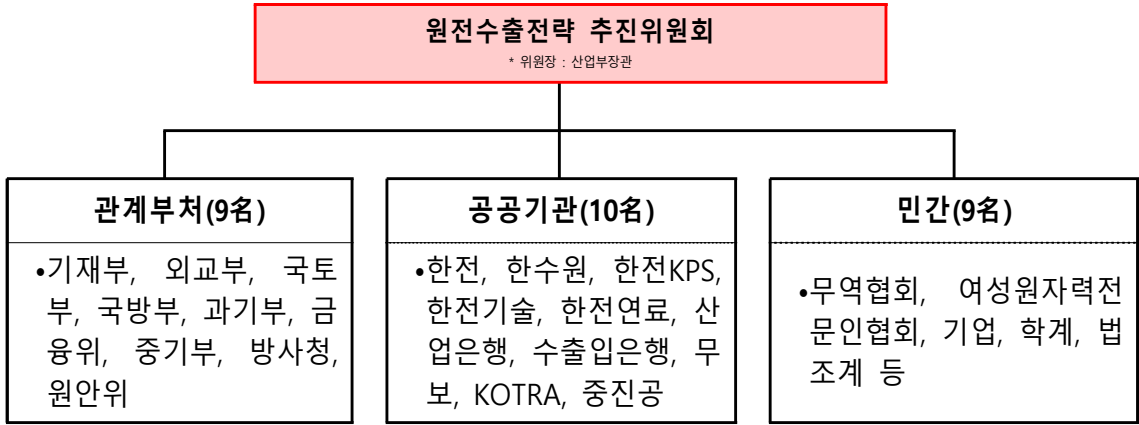
구분	발전용량(kWh)
'20	60
'25	410
'30	580
'35	730
'40	830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69UHO2GNO>), EIA)

또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인 EU Taxonomy에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원자력 발전에 참여하는 건설사 및 금융 기관은 ESG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원전 사업에 대한 추진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민관의 전방위적인 움직임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해외 원전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2.8))

이러한 지원은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이집트 원전 수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중동 내 원전 수출 활성화에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가별 인프라 원전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중동 주요 국가별 원전 현황]

국 가	프로젝트	규모	금액 (백만불)	진행상황
이집트	엘다바 원전 1~4호	4800MW (1200MW×4기)	30,000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ASE JSC와 기자재 공급 및 터빈건물 시공 등 총 약 3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8.25)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총 2,800MW (1,400MW×2기)	미정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 주요 4개국에 원전 입찰 관련 서류 송부
이라크	원전	11GW 규모 8기	40,000	·원전 8기 건설 계획 발표('21.6, 원자력청(IRSRA))
이란	원전	360MW	-	·계획발표('22.4, 원자력청(AEOI))

(출처 : 각국 정부 및 국내외 언론 발표 취합(2022.6))



### Ⅲ. 결론

우리 해외건설산업은 '70년대 오일쇼크, '08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긍정적 기여를 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해외건설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공급망 차질 등의 우려 속에서도 올해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및 원전 시장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통한 정부의 전방위 지원은 해외건설업계에 고무적이다.

주요 전략 중 첫 번째는 수주 역량 결집이다. 특히 파급효과·규모가 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수주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민간 금융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5천억→2조원) 및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은 금융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인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점은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입찰 단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KIND의 G2G 협상지원기능 강화와 개도국 사업에 대한 EDPF 금리 인하(최대 3.5%→1.4%)는 유망사업의 선제 발굴·수주 연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원전·친환경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다. 특히 8월에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유망국가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또 사우디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5년까지 총 500억불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친환경사업 관련 4천억원 수준의 PIS 펀드 추가 조성 등은 원전·친환경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및 원전 시장의 부활을 우리 해외건설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건설업계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 <붙임.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액의 관계>

과거('66~'21년)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액 사이의 상관관계수는 0.92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으로 이 상관관계수가 가지는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단, 산유국의 경우, 재정 균형 유가 대비 시장 유가가 높을 경우, 발주 확대→입찰 사업 증가→경쟁 약화→우리 기업의 수주 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 [국제유가 - 해외건설 수주액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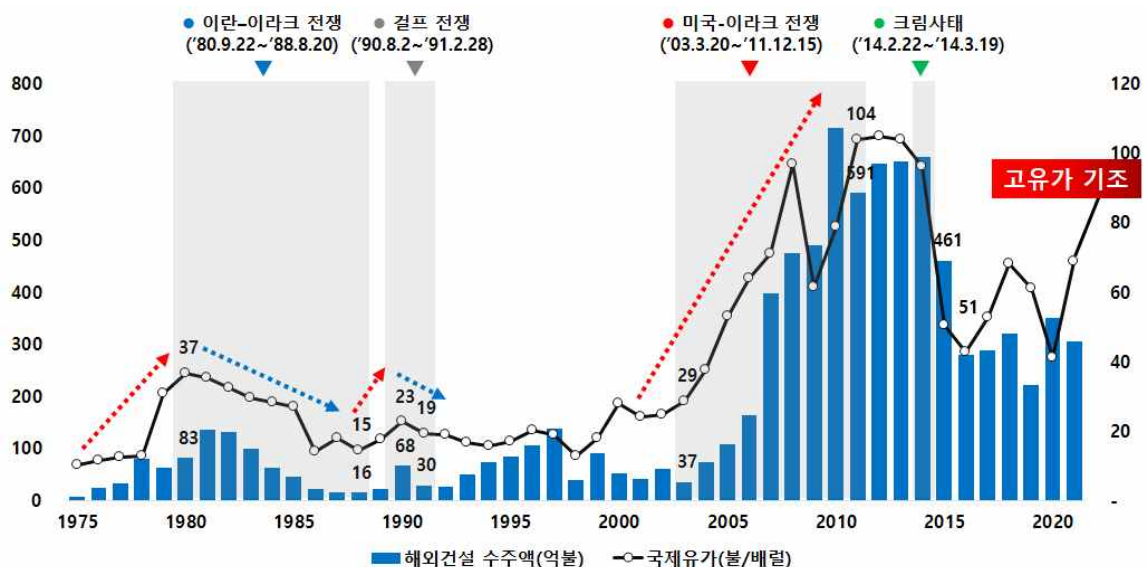
구분	① '07~'09	② '10~'14	③ '15~'21
평균 유가 (불/배럴)	78	91.9	53.2
유가 변동률 (%)	-	18	-42
평균 수주액 (억불)	455.3	653.7	319.3
수주액 변동률 (%)	-	44	-51

(출처 : 해외건설협회(2022.8), 세계은행(2022.8))

유가 수준에 따른 수주액 관계를 ① '07~'09년 ② '10~'14년 ③ '15~'21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 평균 유가·수주액은 ① (78불·455억불) → ② (92불·654억불) - ③ (53불·319억불)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수주액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유가 상승기·하락기에서 해외 수주액은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가 상승기를 보면, ② 시기 유가는 ① 시기 대비 18% 상승했는데, 수주액은 44% 증가했는데, 수주액 변동률이 유가 변동률 대비 2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하락기의 경우, ③ 시기 유가는 ② 시기 대비 42% 하락했는데, 수주액은 51% 감소했다. 즉, 수주액 변동률이 유가 변동률 대비 9% 포인트 높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 [국제유가, 주요 이벤트,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출처 : 해외건설협회(2022.8), 세계은행(2022.8))

